

아시아, 97년 EP수요 120만톤

연평균 신장률 6% 예상 ... 가동률 85~90%선 유지

아시아 EP시장의 소비량이 오는 97년에 12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2년에 90만톤의 소비량을 기록했던 아시아 EP시장은 한해 평균 6%의 성장을 지속, 97년에는 120만톤의 소비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97년에 전체 EP시장중 나일론시장이 40만톤의 소비량을 기록, 최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폴리카보네이트는 한해 평균 7%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어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지난 92년에 대부분의 용도에서 공급과잉을 기록했던 EP시장이 97년에는 전체 소비량에 다가갈 것으로 내다봤으며, 가동률은 85~90%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의 신증설은 97년까지의 수요증가분을 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신증설을 발표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플라스틱성형기술은 일반수지나 컴파운딩 제조기술보다는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 분야에서의 EP기술의 활발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일본 최대의 나일론6 EP 생산기업인 UBE는 유럽 EP시장 진출의 첫단계로 스페인 Castellon에 공장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UBE는 유럽 EP시장 진출을 위해 이미 Castellon에 있는 카프로락탐 생산기업인 Productos Quimicos의 주식 30%를 매입, 원료공급선을 확보해 놓고 있어 유럽 EP시장 진출이 확실시 되고 있다.

UBE는 오는 94년까지 Productos Quimicos의 주식을 90%까지 매입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UBE는 일본에서 연 6만~7만톤의 나일론6을 생산, 자동차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수천톤의 EP를 유럽 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4/5/9>